

---

---

#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

---

2018년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목차>

기동민 국회의원	4
김동철 국회의원	5
김병욱 국회의원	6
김선동 국회의원	7
김성수 국회의원	8
김성식 국회의원	9
김순례 국회의원	11
김승희 국회의원	12
김학용 국회의원	13
김현권 국회의원	14
민홍철 국회의원	15
박경미 국회의원	16
박대출 국회의원	17
박완수 국회의원	18
박완주 국회의원	19
박인숙 국회의원	20
박주민 국회의원	22
박지원 국회의원	23
박홍근 국회의원	24
박승주 국회의원	25
성일종 국회의원	27
손혜원 국회의원	28
송기헌 국회의원	30
송희경 국회의원	31
신창현 국회의원	32
심재권 국회의원	33
심재철 국회의원	34
위성곤 국회의원	35

유기준 국회의원	36
유승희 국회의원	37
윤상직 국회의원	38
윤재옥 국회의원	39
윤희한 국회의원	40
이동섭 국회의원	41
이만희 국회의원	42
이명수 국회의원	43
이인영 국회의원	44
이현재 국회의원	46
이혜훈 국회의원	48
임이자 국회의원	49
장정숙 국회의원	50
장제원 국회의원	51
전희경 국회의원	52
정동영 국회의원	53
정성호 국회의원	54
정운천 국회의원	55
정인화 국회의원	56
정태옥 국회의원	57
조승래 국회의원	58
조원진 국회의원	60
추경호 국회의원	61
표창원 국회의원	62
하태경 국회의원	64
한정애 국회의원	65
홍익표 국회의원	66
황주홍 국회의원	67

기동민 국회의원

###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먼저, '2018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국리민복상은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현장 모니터링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상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큼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초선임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면서 이번 국정감사는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국민연금, 아동수당, 문재인 케어, 수술실 cctv설치와 대리수술 논란 등 국민의 삶 전반을 감싸는 현안들이 많은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그만큼 더욱 치열하게 임했습니다.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여당 간사로서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정감사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내 삶의 친구 같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시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국감 모니터링 해주신 NGO 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정책을 실현하려는 의지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동민



김동철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환노위)

국회의원 모두가 열망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의 활동을 적극 평가해주신 NGO 모니터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국정감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 꼼꼼히 기록하고 활동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처음이었지만,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과 열정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던 것이 오늘의 결실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문제의식으로 환경과 개발의 조화 문제, 노동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법, 그리고 시대적 과제인 고용문제를 놓고 꾸준히 학습하고 대안을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사회적 공감을 이뤄내는데 일조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성공시켜야만 하는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치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바로 국회로 보내주신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광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지역주민들 덕분입니다. 한결같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매우 큰 기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지금은 사실상의 '상시국감 체제'라는 각오와 의지로 앞으로도 상임위원회와 국정 현안을 앞장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올 해 여름 상임위를 교문위에서 정무위로 옮기고 처음 하게 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국감의원은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니터단이 16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직접 평가·선정한 소중한 상입니다. 매번 국감장에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경청하시고 메모하시는 NGO모니터단 여러분을 만날때마다 큰 기운을 받곤 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증권계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금융분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문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벨류에이션 문제, 한국증시저평가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세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이 후 정책토론회까지 진행하여 금융당국에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힘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공정경제연합회가 공정위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한 사실을 폭로하고 하도급 별점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여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는 등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개선하고 공정경제 질서를 만드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4권(2017년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분석, 협동조합에 금융을 허가하, 부동산을 사랑한 한국 금융, 가맹사업 개선방안) 발간하여 비판을 넘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2018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개선되어야 할 국정과제들에 대해 꼼꼼하게 챙기고 정부와 당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입니다. 이번에 제게 주신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부터 앞장서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리민복상을 수여하시기 위해 국정감사 기간 내내 애쓰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동 국회의원

##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 김선동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올해에도 실효성있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 수상의원'으로 선정해주심에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급박한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고, 청와대의 선동 구호에 불과한 적폐청산 구호의 허상을 짚어내어 국민 여러분과 언론으로부터 큰 관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美 재무부가 컨퍼런스 콜(전화회의)을 통해 '남북경협 심히 우려, 대북제재 지속' 등 상당 수준의 경고성 메시지를 금융당국에 전달하였음에도 우리 금융당국은 이를 은폐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해온 것을 최초로 지적하였고, 금융감독원장은 20일이 지나 후속 조치 논의 없는 준법감시인 회의를 개최, 이를 비공개하다가 저의 질의를 통해 국감장에서 회의 개최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최근 실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행위 발생 가능성만으로도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제재 패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금융당국에 정확한 사실관계 공개와 금융회사의 대북제재 리스크 발생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대응 로드맵 마련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촉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지정한 19개 부처 중 단 3곳만(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적폐청산 TF를 구성하는 등 선동구호에 불과한 적폐청산을 지적하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관련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에 대해 해당 부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했는데도 국회에는 부처의견 수렴에 문제가 없었다고 허위보고 했음을 밝혀내어 김상조 위원장의 사과와 향후조치 약속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무협의가 36%에 달하는 무분별한 공정위 현장조사를 지적하여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 일관한 공정위의 무리한 법 집행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의 무리한 최고금리인하 부작용으로 저신용자의 저축은행 신규대출이 20.5% 감소했음을 지적하며 최고금리 단계적 인하, 서민지원자금 확대 등의 대책을 촉구하였고,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행정실 내부검토의 문제 지적, 보훈처 보훈정책 통합·조정 제안,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시스템 개선 요구 등을 질의하며 국정감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헌법으로 명시된 삼권분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2018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오늘 주신 국리민복상은 2018 국정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길 바란다는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성수 국회의원

##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수 입니다.

16개 상임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진행해 주신 1천여 명의 모니터위원과 평가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회는 입법 기능 외에도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는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비판 기능을 수행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ICT 역차별 문제는 물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집배원 임금체불 문제, 무급 노동에 시달리는 학연생 실태조사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정치공방과 파행으로 인해 ‘부실국감’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만큼 현재 국정감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역시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 연계 강화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분석을 거친 자료·증거로 국정 운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에 선정해 주신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좋은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식 국회의원

## 2018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수상소감

###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서울관악갑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천여명의 유권자들을 대신해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새 정부를 대상으로 치러진 두 번째 국정감사였으나, 사실상 첫 번째 국정감사라는 생각으로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제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나아가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보다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발표되었던 정책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한편, 향후 올바른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보다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직면해있는 해묵은 경제문제를 해소하고자 내놓은 정부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는 않는가, 차기 정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두루 살펴보고,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점검해 새 정부가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을 기초로 지난 2년간 국정감사 및 상임위에서 중요하게 지적했던 사항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지적하며 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걸음 더 나아간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소통하며 대안을 구체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실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보'를 받은 후 질의와 연결시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한 결과 많은 분들이 질의에 공감해주셨고, 오늘 귀한 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성원해주시고 다양한 고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국정감사를 일곱 번이나 치렀지만 매번 크고 작은 아쉬움이 남곤 합니다. 다만 국정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현안보고·업무보고, 예·결산 그리고 법안 심의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 부처에 대한 생산성 있는 견제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과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더 좋은 질의, 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우리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2019년은 여러분이 꿈꿔왔던 바람들이 모두 이뤄지는 희망의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12.27.

국회의원 김성식

김순례 국회의원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국민복상(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빠짐없이 상임위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수상자 선정을 위해 고생하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상임단장이신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님을 비롯한 각 시민단체 대표님,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국약사로서 37년간 일선 의료현장 경험을 가지고 20대 국회에 등원했습니다. 국회에 처음 출근하던 날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국정감사를 치렀습니다.

올해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정책과 예산을 제1야당으로서 꼼꼼히 짚기 위해 어느 때보다 노력했습니다. 또한 대안 있는 정책질의와 코드 인사로 유발된 문제점까지 짚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1)OECD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는 결핵문제, 청소년 에이즈 감염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대책을 촉구했고 (2)신뢰성이 추락한 국민연금의 정상화 요구 (3)국민 혈세 낭비하는 깜깜이 사업, 관행 근절 대책의 촉구 (4)도덕성과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 문제점 지적을 통해 정부 측의 기본계획 변경 및 새로운 대책 마련의 답변을 받아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과 함께 아이디어도 주셨고 저또한 끝까지 소신을 펼쳤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인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은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의 실행과정을 꼼꼼히 살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가슴 깊이 새겨서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복상의 뜻처럼 '나라의 이익(利益)과 국민(國民)의 행복(幸福) 증진'을 위해 '국민께 많이 듣고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속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 순 례

## 김승희 국회의원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김승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승희입니다.

먼저, 2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리민복상' 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밀하고도 심도 깊은 심사를 표방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우수의원이어서,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제게 주어진 직분을 다 했을 뿐인데, 2년 연속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후반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저해하는 것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치루며 당시의 다짐을 잃지 않으려 분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맞이한 2018년 국정감사의 시발始發은 '문케어 시행 1년'을 돌아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들을 중심으로 정책과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방향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주력해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文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국민연금 개편안 등에 대한 정책적 검증에 열심이였으며, 온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발암물질 고혈압약 발사르탄 유해물질 사태와 초코케이크 학교 집단식중독 사태 등 현안 감사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아주대학교 응급의료센터 이국종 교수와 암환자분들을 참고인으로 모셔, 현장 각계의 소리를 청취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감사를 이루고자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주요공약의 방향성 및 정책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로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의 모호함과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솔직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8 국리민복상에 선정된 이유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당이 명실공히 민의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국정감사기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해주신 NGO 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하고 묵묵한 의정활동만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국회의원

## 수상 소감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 상임위원장상) 수상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값진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남은 20대 국회에서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을 다짐해봅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모든 사회갈등이 압축되어 있는 상임위입니다. 노사 의견 대립이 크고, 이해관계가 대단히 첨예합니다. 현재 환노위에 1,535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처리율이 23%가량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노동관련 현안은 첨예하고, 하나하나가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족하나마 금번 국감에서 단 한 번의 파행도 없이 상임위를 민생국감·정책국감으로 이끌었던 점이 오늘 뜻 깊은 수상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땀땀하게 진행되는 국감일정 내내 함께 호흡을 같이 해주시고, 20년간 한결같이 국정감사 소과정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계신 NGO모니터단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 협치를 통해 노동자와 고용주, 그리고 국가경제에 실익이 되는 환경노동위원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배전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 김현권 국회의원

###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입니다.

먼저, 2018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높게 평가해주시고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3년 연속으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국정감사 기간동안 함께 고생한 보좌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수상하게 된 선배·동료의원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애써주신 모니터링단 여러분과 평가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GMO 해양오염, 귀농귀촌 자금이 애견분양업체와 기획부동산 사기극에 활용, RE100(재생에너지 100%사용)의 국내 산업 영향, 고산지대 침엽수의 멸종위기 등 새로운 정책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국감에서 공개하여 이슈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참고인 질의를 통해 축산악취의 해법을 제시하고, 로컬푸드가 중소농의 농가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생생한 현장 사례로 입증한 것은 정책적인 큰 성과였으며 우수의원 평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철 국회의원

### 민홍철 의원,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20대 국회 후반기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 수상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군법무관의 최고 직위인 육군본부 법무감,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장을 역임하고 예편한 장군 출신 의원이지만, 지난 6년 동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만 활동하다가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간사)으로 활동하면서 받는 첫 번째 상이기에 더욱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사실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감사 무용론이 해마다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행정부와 산하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국정감사 제도라고 생각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2019년도 예산과 개정이 필요한 법률, 정책의 효율성 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에 4.27판문점 선언, 9.19평양공동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등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와 합참, 각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70여년간 이어져온 남북한간의 적대적 관계의 획기적 변화가 있어도 국가안보가 흔들리거나 구멍이 뚫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국감감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을 비롯한 피감기관들이 답변을 통해 시정을 약속한 사항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이 「국방개혁 2.0」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군으로 자리매김하고, 무기과 작전체계의 개선을 통해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과 현대화·선진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국회의원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미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리자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꼼꼼히 모니터해주신 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서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의 목표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 정책과 현장 전반을 점검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특별히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등하굣길을 비롯한 학교 안팎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학 입시와 장학금 등에서 발생하는 차별 시정을 주문하고, 성 비위와 채용비리 등 교육 현장의 각종 부정과 적폐를 바로잡도록 철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오직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주권과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수상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 오직 국민을 향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입니다.

20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에서 4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에 선정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부족함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추고 20년 동안 국정감사를 철저히 평가해 오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 깊은 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첫 시험대라 할 수 있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17개월 간 자행되어온 현 정부의 각종 실정을 파헤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과 정책대안들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일회성 국정감사가 아닌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긴급지침' 실체를 최초로 폭로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단기·가짜 일자리 양산에만 집중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TV·데이터 홈쇼핑 여행상품 관련해서 판매업체 부도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문제를 질타하여, 과기정통부가 그동안 내부 관행에 따라 여행사를 선정해 오던 방식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력수급 불안과 원전산업 기반 붕괴 문제, 비전문가 원자력계 장악문제 등 재앙적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였습니다. ▲유료방송 셋톱박스 대기전력 문제와 TV·데이터 홈쇼핑의 여행상품 선정기준 문제 등 민생과 현안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제도개선을 이뤄냈습니다.

국민의 시선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외에도 해마다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출연연과 연구기관들의 문제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내년 2019년 국정감사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서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 박대출

박완수 국회의원

## 소감문

지난 날 헌정역사상 우리의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체제로, 또 국회가 민주의회로서 발전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표기관이라는 역할보다, 정치권력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되었다는 인식이 존재해왔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컸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실천해야 할 책임과 원칙을 항상 인식하고, 저 스스로 국민의 대표라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의정활동의 가장 밑바탕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이렇듯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올해에도 우리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서 2년 연속 받은 이 상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기 끝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 회 의 원 박 완 수

박완주 국회의원

## 국정감사,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박 완 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

### <농어민의 삶,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입니다>

우리 농어민이 잘사는 대한민국, 왜 중요할까요?

농어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농어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국정감사,

대한민국 농정의 미래를 살피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히 키우는 것이라는 책임감으로 임했습니다.

### <오직 농어민의 소득향상, 집권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저의 이번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농어민의 소득향상’이었습니다.

농업 직불제 개편, 무허가축사 규제방안 모색, 쌀 고품질 품종 개발,

PLS제도 점검, 수산자원 회복 대책, 농어촌상생기금 민간기업 출연 의지확인까지

정부 정책의 잘된 점은 더욱 독려하고, 보완해야 할 점은 대안제시에 주력했습니다.

### <국정감사,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만,

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영광스럽고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들은 지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법, 예산, 제도개선으로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도 집권여당의 농해수위 간사로서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인 농어업을 살리는 일에 일로매진하겠습니다.

박인숙 국회의원

## 국리민복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송파 갑 국회의원 박인숙입니다.

2018년 우수 국감위원의 영예를 안겨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수여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한 국회의원이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격려와 신뢰를 전달받는 유서 깊은 상임을 잘 알고 있기에 기쁨이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의정활동을 보여 달라는 뜻으로 알고, 언제나 한결같은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과 혼란을 여실히 보여주며 많은 분야에서 국민적 관심과 주목을 받았으며, 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써 정쟁이 아닌 정책국감을 만들어 나가고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 하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으로 인해 만들어진 또 다른 적폐를 찾아내어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남북관계 회복이라는 이름하에 상호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실한 단기 일자리 정책’, ‘풍납토성 주민대책문제’,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의 부실운영’, ‘청소년 도박중독’, ‘체육계 캠프터 인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문제’등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과 정책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당사자에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정책과 제도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세상으로 드러낼수록 해결해야하는 난관 또한 늘어남을 알고 있지만, 오직 대한민국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국감을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하였으며 그러한 다짐과 노력들이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만드는데 미약하나마 기여했다고 여겨져 보람이 크고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 감회가 남다



른 것 같습니다.

산적인 문제들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많은 난관이 남아있습니다. 일회성 지적에 그치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개선되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파 갑 지역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소명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국정감사 국민복상  
(우수국감의원) 수상 소감**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어느덧 무술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특히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조속히 해결하지 못함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해진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를 받은 판사들이 많다는 지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 등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연계되는 쟁점들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었고,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사실 등을 지적하며 법원의 태도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전자법정사업 과정에서 전 법원 공무원의 부인이 설립한 여러 가지 위장회사에 입찰특혜를 준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지검장에게 수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추가 비리 의혹을 제기하여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수상하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법률소비자연맹과 모니터단 요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정치의 문턱을 낮추고,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국회의원이 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박지원 국회의원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18.12.21)

법제사법위원회에서만 11년째인 박지원입니다. 국회의 지도부로서 동료의원들이 선택하지 않는 비인기 상임위를 자원한 측면도 있지만,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더불어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국회의원에게 요구하는 전문성 측면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한 상임위를 고집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한 국정감사 우수(모범)의원에 10년 연속 선정된 것은 오직 시민단체와 언론의 덕분입니다. 특히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시정되었는지를 매년 확인하고, 모든 감사에서 시작과 끝을 지키는 것에 충실했던 것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국민 인권향상, 국민 안전 문제 등 법사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시민단체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과 힘을 합쳐 제도를 개혁하고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20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분발과 노력을 촉구해 왔습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오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모범의원)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 <진심이 통하는 정치를 위하여>

국회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진심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뜻의 진심(盡心)과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이라는 뜻의 진심(眞心). 많은 정치인들이 진심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국민 앞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진실로 마음을 다했는지, 거짓은 없었는지 자문하고 또 자문하게 됩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의사일정에 묻혀 실로 수많은 국민 앞에 다짐했던 진심의 농도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내 어떻게 하면 국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의제를 발굴할 수 있을지, 정치를 통해 바꿀 수 있는 변화를 마음에 와 닿도록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정치를 마주하면 고개를 저어버리는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우려를 알고 있었기에 불신의 벽을 이길 수 있도록 적당히 얼버무리는 수사적 언어는 절대 금했고 현장의 숨은 목소리를 진실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피감기관을 향하는 모든 지적에 대해서는 정쟁이 아닌 국민의 삶에 일으킬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무력감과 피로감, 혐오나 불신의 벽을 뚫고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에 담긴 진심을 국민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후반기에 국토교통위원회로 보임된 후 새롭게 접하는 여러 중요 의제들에 때론 버거운 상황들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더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여러 전문 모니터요원과 전문가들의 정직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결과인 만큼 그 어떤 상보다도 더욱 남다르고, 19대 초선 시절부터 6년 연속으로 수상한 만큼 앞으로도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더 뛰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모쪼록 수상의 영광을 원동력 삼아 정치인으로서 저 자신을 더욱 단속하고 좋은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서도록, 나아가 정치의 진심을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주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선정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구미시(갑) 국회의원 백승주입니다.

2018년 국정감사 성과를 인정받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대한민국과 구미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구미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함이 많았는데도 높이 평가해 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여야 정쟁을 넘어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기여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적 기대와 지지에 부응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2018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에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백승주 드림

백재현 국회의원

##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백재현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명갑 출신 백재현 의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약 17개월을 보내고 치룬 2018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정밀한 평가를 위해 올해도 수고 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에게 항상 응원을 보내주시는 사랑하는 광명시민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는 그동안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국정감사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 넘는 시간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이행방안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 시작 이전부터 원내외에서 국정감사 준비에 착수하여 부처 실무자,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를 통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 질의는 물론 합리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지난 19대 후반기 활동 이후 다시 산업통상자원위원으로 돌아와 치룬 국감으로, 세계적 추세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에너지전환 당위성을 구체적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중소기업 성장방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 문제 관련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기관의 관계자들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더욱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신 광명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들의 활동을 꼼꼼하게 평가해 주신 모니터위원, 평가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선정된 의제들은 향후 법안 심사와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챙겨갈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오늘 수상하는 ‘국리민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 국정감사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 최초로 정부 재원 투입 답변 성과

- 서민금융을 위해 투입된 규모는 37조원 수준이었으나, 은행과 카드사 등 출연금, 복권기금으로 충당하였음. 즉,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정부차원의 금융정책 지원이나 재정투입은 요원했다고 지적함. 이에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용도가 열악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기회를 더 많이 받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서민 저신용자를 위한 복지 차원의 정부재원을 투입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부품업체 관행 끊고 새로운 공정 시장 구축 촉구

- 현대차·현대모비스에 비해 1차 협력업체는 영업이익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면, 자사브랜드 업체는 협력업체 보다 10배 많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함.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과감한 지배구조 개선으로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 위기에 빠진 자동차산업이 건강한 생태계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정부도 이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함.

○ (대통령비서실) DMZ 방문, 홍보영상에 군사보안 노출 지적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장·차관 등과 함께 비무장지대 방문 후 제작한 홍보영상에, 군사 보안시설(통문번호)이 노출된 점을 질책해 임종석 실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냄.

□ 소 감

- 매년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아 보람을 느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여야 간 정쟁이 아닌 정책국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한 점을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높게 평가 받은 것 같다. 앞으로도 정쟁 보다 민생과 정책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  
특히,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체감경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시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보완하는 의정활동에 보다 매진하겠다.

손혜원 국회의원

## <2018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민복상 선정 소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국회의원 손혜원입니다.

먼저 과분한 상을 받기에 앞서, 국민여러분 앞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고, 제기한 현안들은 끝까지 해결하여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더불어 저에게 '2018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국민복상)'이라는 큰 영광을 안겨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정감사의 전 현장에서 함께하신 여러분께서 주신 상이어서 더욱 기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독립하여 부활한 가운데 열린 첫 국감이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이라는 거대한 이슈에 가려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체육이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다루지 못한 만큼 더 철저히 감사를 진행하고, 위원회가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전통문화와 지역 관광의 문제를 풀기위한 길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밥”입니다. 역사에 기반한 전통 문화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살립니다. 특색 있는 지역문화는 관광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를 살립니다.

이러한 비전을 정부와 국민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이번 국감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실제 정책과 법안으로 ‘문화가 먹여 살리는 나라’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를 어둡게 하는 불법도박과 모바일 게임을 통한 도박유사행위의 실상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스포츠 분야 문제의 실체를 밝히고자 노력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여 형편없는 수리를 자행하는 부정한 문화재 수리업체들의 실태도 국민여러분에게 고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문제들은 끝까지 파헤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은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항상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마포(을) 주민 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한 보좌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번 한해는 평화를 향한 획기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해였습니다. 대결로만 치달던 남과 북은 새로운 전환점에 섰습니다.

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낸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2019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세계 경제의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IMF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 국민들과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욱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 가는데 문화가 앞장 설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 12. 27.  
국회의원 손혜원

송기현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국회의원 송기현입니다.

먼저 매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하고 평가해주시는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 온·오프라인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 평가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특히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행정부 감사'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영광입니다.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적 관심사가 큰 이슈와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는데, 그 부분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정부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국회의원 송기현

송희경 국회의원

**“<국리민복>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2016년, 2017년에 이어 올해도 3년 연속‘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해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국리민복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상명까지 함께 주셔서 더욱 기쁩니다.

민생을 위해 국정을 감사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은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국정감사 현장을 함께 끝까지 지켜주신 NGO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현 정부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심판대에 오른 자리로, 핵심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 원안위원장 사퇴 같은 기관들의 책임 회피적 태도, 증인들의 비협조적 답변으로 감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속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선 5G, 사이버 보안, 탈원전, 포털 언론 공정성, 신진 석박사 월급상납, 가짜뉴스 등 주요 이슈를 환기하고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관련 문제점을 지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겸임 상임위원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보육 현장의 사각지대인 민간베이비시터 관리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국정감사 내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시연을 통해 ‘국민 맞춤형 질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국정현안에 대한 더욱 면밀한 분석과 더 나은 정책 제안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반듯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긴 시간동안 국정감사를 함께해 주신 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송희경 올림

신창현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시 국회의원 신창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감NGO모니터단’에서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 수상위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국회 안팎에서 애써주신 분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 목소리를 전달해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항상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정감사에서는 현 실태를 고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문제개선을 이뤄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정감사 이후에도 여러 관계자들과 의견교류를 위한 토론회 개최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발의를 통해, 실제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많은 지적과 응원의 말씀들이 의정활동에 언제나 든든한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는 특히나 국민들께서 크게 피부로 느끼시는 환경·노동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노동부, 기상청과 관련해 지적했던 사항들은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어느 때보다 큰 뿌듯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항상 낮은 자세로 환경·노동관련 현안을 살피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의 뜻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사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성실하고 꼼꼼한 준비 과정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국민들의 뜻이 국민들의 삶 속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을) 의원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한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에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 뿐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철 국회의원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감모니터 활동을 위해 힘써주신 모니터위원분들과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노력하신 평가위원님들, 그리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를 비롯한 각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예산낭비 요소를 찾아내고, 정책대안을 통해 더 나은 해결점을 모색하는 국정감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의 한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2018년 기획재정부 및 산하 기관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정감사가 일회성 감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와 함께 수개월 동안 자료를 준비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했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법개정안을 사전에 준비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총 82건의 정책질의와 63건의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고 향후 제도적 완비를 위해 총 2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책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으로 인한 저성장 및 고용률 하락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발전과 서민생활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아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업무추진비의 심야시간대 무분별한 사용, 주말사용, 술집에서의 사용 등을 비롯해 정부의 예산정보시스템에서 업무비의 업종누락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해 감사원의 감사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더 본연의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국회의원 심재철

위성곤 국회의원

##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위성곤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등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한 후 2018년 7월부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되어 올해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를 지향하며 SNS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실패 사례를 제보 받는 등 정책수혜자이자 주체인 국민들과 소통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책적 개선 및 입법 개선사항 도출이라는 큰 목표 하에 1) 도·농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격차 해소, 2) 중소기업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 3) 스타트업등 창업인프라 확충 및 법·제도 개선, 4) 국민의 혈세인 세금 낭비사례 적발, 5)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 등 5가지 세부과제를 점검 및 정부의 부실한 정책집행 지적을 목표로 설정하고, 정부에 자료요청, 시민단체 연구자료 공유 및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이상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행정부가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감을 통해 지적한 내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 볼 것이며, 만약 개선되지 않는다면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다시 지적하는 등의 끈질김으로 국정감사가 일회성이 아닌 생산적인 결과물을 산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 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노력해주신 NGO모니터단, 언론인, 보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우수의원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오는 2019년 국정감사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우수국감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여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부산 서구동구 유기준 국회의원입니다.

2016년,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은 스스로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자세로 민심을 대변하고, 민의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현 정부의 대북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 부족 문제, 유엔사 동의 없는 남북 군사합의 문제, 대북 제재 무시한 채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강행하는 문제, 북한의 실질적인 북핵 폐기 조치가 없음에도 남북 관계 진전에만 속도를 내고 있는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한 문제, 국제사회의 동조를 받지 못한 대북제재 완화 주장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 판문점선언 및 평양선언 비준동의 문제, 대북차관 상환 문제, 금강산관광중단과 5.24 피해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문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통일교육지침서 활용 교육 문제, 국군포로와 남북자송환 문제 등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번에 의정활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은 그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현 정부·여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자세는 더욱 낮게, 목표는 높게 가지면서 국가와 지역에 화풍난양(和風暖陽)이 깃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지지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 서구동구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NGO모니터단을 비롯한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27.

국회의원 유 기 준



유승희 국회의원

## 국감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또한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이 상의 무게를 알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평가기간 내내 고생하셨을 1천여 명의 모니터위원과 평가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세 가지 기조로 임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성장 패러다임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한다는 점 △둘째, 미래세대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고, 공정경쟁을 통한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셋째, 예산낭비가 없어야 하고 정책이 목표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경제의 불평등·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지난 수십 년간 우리사회를 지배해왔던 선성장·후분배의 패러다임은 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정부는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포용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재위원으로서 그간의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을 높이 평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사회에는 두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 군의 사망과 최모 택시기사의 분신이 그것입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어깨 펴고 웃는 날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항상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윤상직 국회의원

##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소감

국회의원 윤상직

작년에 이어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주관하시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와 시상에는 앞으로 더욱 잘해 달라는 당부와 기대가 더 큰 의미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속 깊이 이 당부를 새기겠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바른 정치를 지향하며 봉사하시는 국감NGO모니터단과 평가위원,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20년째 이어져온 모니터단의 공정하고 헌신적인 활동은 세계의 귀감이 되고,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상은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감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 하고 정밀한 평가를 근거로 한 시상으로써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상을 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윤재옥 위원(행정안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윤재옥 의원입니다.

먼저 270여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20년 전통의 ‘국감NGO모니터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위원)’수상자로 선정된 점에 대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는 현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 첫 번째 국정감사였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1야당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실정을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전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고용세습 문제를 공론화하여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폐해를 밝혀냈고,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효율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막대한 부담을 미래세대에 지우는 나쁜 정책의 시정을 요구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행안위 소관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점을 낱알이 파헤쳐 무책임한 인사 정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지시로 공공기관을 압박해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개하여 현 정부의 졸속 일자리 정책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으며, 각종 대형 화재 대응을 위해 올 6월부터 대통령 지시로 추진중인 소방청 소방안전특별조사에 자격증 없는 청년인력을 채용한 사실을 밝혀내,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 점검 업무까지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위원)’에 선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1야당 의원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감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한홍 국회의원

소감문  
윤 한 홍 의원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받은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민 여러분이 '2018년에는 잘했다.'며 격려와 신뢰를 보내주시는 것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깊게 느껴집니다.

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생태계 붕괴와 이로 인해 초래될 향후 전기 수급 문제와 전기요금 인상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또한 친여권 성향의 특정 단체가 태양광 보조금을 독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결국 친환경적이지도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탈원전 정책에 국민의 부담만 더해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가짜 일자리 고용 통계조작,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내실 없이 예산만 쓰는 코리아페일페스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중소기업 연구원의 갑질 계약 강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주신 격려와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특히 文정부의 탈원전-신재생 에너지전환 정책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친환경적이지도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탈원전-신재생 에너지전환이 단 한 사람의 아집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수혜는 친여권 성향의 사람들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가짜 일자리 고용 통계조작,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내실 없이 예산만 쓰는 코리아페일페스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중소기업 연구원의 갑질 계약 강요 등 수 많은 문제점들을 찾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주신 격려와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섭 국회의원

##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입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20년 전통의 가장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의정활동 평가에서 2018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국리민복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무한한 영광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모니터단을 대표하여 이끄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현 총재님과 홍금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장님을 비롯한 국정감사 모니터단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8 국정감사는 여야의 극심한 정쟁 속에 치루어졌습니다. 보여주기 식의 질의만 계속된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의회의 대행정부 견제라는 기본 임무에서 진실로 의미있고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질의문답과 대안제시도 있었습니다. 민생이 외면되고 경제는 악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회는 더욱 노력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실망만 계속해서 안겨줄 수는 없습니다. 실로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 정당이 아닌 군소 야당 간사로서 상임위에서 몇 배의 노력을 쏟으며 국회의원 몇 사람 몫의 역할을 하고자 이를 악물고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국기 태권도 진흥과 정책의 문제점, 현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박물관 채용비리로 이어진 문제부터 경복궁 등 고궁관리사무소 관리 실태, e-스포츠 명예의 전당 문제점, 지역 불균형 유발하는 광역관광개발 지적과 대놓고 사설 도박장 운영 중인데도 손 놓고 있는 사감위 질책까지, 상임위 전반을 아울러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저를 3년 연속 우수위원,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것도 제 작은 노력과 정성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국정감사 첫 해에 ‘一寸光陰不可輕(일촌광음불가경)’의 자세로 일하여 매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마음가짐입니다. 과분한 상을 수상했다고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따끔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더욱 노력하는 이동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 ‘국리민복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경북 영천·청도 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먼저, 공사다망했던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개최하는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늘 이 자리 마련까지 긴 국정감사 기간을 함께한 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책임과 소임을 묵묵히 이행했을 뿐인데, 3년 연속 의정활동의 노벨상이라 평가받는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농어민 여러분께서는 고된 1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수입 농수산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데, 옆친데 덮친 격으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정라인의 공백상태는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에 비해 약 10%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 관련 예산은 고작 1% 증액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정부의 농업홀대 정책을 반증하는 것이고 저는 300만 농심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많은 사안이 산재해 있다 보니 저는 올해 국정감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우리 영천·청도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저의 소신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馬不停蹄’의 정신으로 이번 수상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채찍질로 생각하고 더욱 정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풍요와 복을 상징하는 기해년이 오기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9년에는 온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다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더욱 노력하는 국회의원 이만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의원 이 만 희

이명수 국회의원

### 「이명수 의원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 출신 국회의원 이명수입니다.

어느덧 2018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이렇게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되어 너무도 송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중점을 두려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국감장에서 위원장들은 소속정당 의원들에게 발언시간을 더 주거나 편을 들어주는 등 편파진행을 하곤 하는데,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일반인 증인과 참고인들에게도 권위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정쟁보다는 정책질의를 하면서,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과 대안제시를 하게끔 이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의료비 오늘을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한다 - 치매를 중심으로 -」·「안전한 해외직구, 이렇게 하면된다!」·「국민연금기금 재정추계 정밀성 확보를 중심으로」·「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등 정책백서를 만들어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정책국감을 주도하였습니다. 늘 국민을 위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신 모든 NGO 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민 여러분과 충청도민, 그리고 아산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이명수

2018.12.

이인영 국회의원

### 수상소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대 김영민 교수는 석 달 전 경향신문에 “추석이란 무엇인가”란 칼럼을 기고해 많은 대중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요지는 존재규정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석을 핑계로 사람들이 마구 불편한 질문들을 할 때 추석이 무엇인지 되묻고 가족이란 이유로 도가 넘는 말들이 오갈 때 가족이란 무엇인지 되물어 오지랖과 비상식적인 언행을 삼가게 하는 한편 추석과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던 많은 대중의 공감을 샀습니다.

국회란 무엇인가, 국회의원이란 무엇인가, 또 의정활동이란 무엇인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주시는 이 국리민복상은 위기에 처한 국회의원을 바로 정의해주는 상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의하고 국가 이익과 국민 복리증진에 힘쓰는 일은 국회의원, 국회, 의정활동의 본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로 세울 때 국민의 뜻을 다하겠다는 정치인의 선한 열망이 개인의 정치적 야욕과 선을 그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은 한반도에 평화의 서막이 깃든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작년 미사일 실험과 험악한 말들로 얼룩진 동북아 정세의 위기 국면이 불과 1년 만에 협력과 화해라는 화두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이념을 떠나, 지역을 떠나, 세대를 떠나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를 열망했던 탓입니다. 이제 평화로의 길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이 됐습니다. 특히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 사명의식으로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시금 스스로에게 정치인 이인영이란 무엇인가라고 되묻습니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 국회의원으로서는 역할과 사명 또한 달라져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저는 남북경협이 한반도의 더 큰 평화를 견인하는 기관차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검사를 하면 몰랐던 사람조차 친구가 되고 때론 가족이 되듯 국가차원에서도 경제협력이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지대하게 공헌한 바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함께한 민족차원이라면 그에 대한 영향과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한 것보다 더 큰 미래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남북경협은 정체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만나 한반도 경



제를 혁신할 것이라 말합니다. 개성공단만 재가동되더라도 향후 30년간 한국에만 159조 이상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개성공단이 들어선다면 그 효과는 훨씬 클 것입니다. 미력하나마 내년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재개하도록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복상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스스로를 반추하며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는 말씀으로 감사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재 국회의원

## 2018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이현재(자유한국당, 경기 하남)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하남) 이현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가 끝나가는 가운데, '2018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이란 영예를 안겨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 탓에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로, 한국 경제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 분야의 컨트롤타워인 국토교통부를 관할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올바른 국토·교통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참여정부의 중부세 실패의 교훈도 무색할 만큼 설익은 부동산정책을 마구 쏟아내면서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값 폭등 및 세금폭탄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정책에 일침을 가하고, 한편으로는 교통 분야에서 부족한 광역교통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통해 교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정책국감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위한 각종 운용지침을 무시한 채 도를 넘는 방만 경영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버젓이 고용세습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타하는 등 헤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한 것도 중요하지만 피감기관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어떻게 고쳐나가는 지 사후 관리를 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정감사가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피감기관들이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일일이 확인해 나가면서 실효성과 생산성 있는 국정감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수상하는 '2018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주마가편(走馬加鞭)으로 삼아, 앞으로도 국토교통정책을 감시·견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대 국회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일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항상 무한한 지지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하남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기해(己亥)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27**

**국회의원 이현재**

이혜훈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혜훈입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국감의원’에 3년 연속 선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평가하여 시상하는 상 중 가장 권위있는 국정감사 국민민복상을 3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기쁜 마음과 함께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전문성 있는 모니터링을 통해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본모습에 더욱 충실하도록 헌신적 활동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은 저에게 변치 않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서초구민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밤낮 없이 국정감사 준비를 하며 고생한 보좌진들,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해주신 사무처 직원 분들, 국민들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력을 다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정감사였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정책 전환을 촉구하였습니다.

저는 최근 부상한 이슈는 물론 연속성 있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채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의 부당함 △LH 영구임대주택 수요파악 실패 △한국도로공사 스마트톨링 시스템의 문제점 △한국감정원 공시·통계 오류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적한 사항들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조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 국민민복상’을 수상하면서 정치를 시작한 각오를 또 한 번 다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수상 소감>

국회의원 임이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먼저, 2018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시상식 개최에 애써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및 법률소비자연맹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장 노동자 출신으로서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저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간주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정부 부처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혹 조치가 미흡하지는 않은지,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정쟁보다 민의를 반영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보다 활발한 국정감사를 위해 고무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단체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 국회의원

## 《2018년도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장정숙입니다.

20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2018 국정감사 국민복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후반기 국회 들어 한 번도 경험한 바 없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살펴보기 위해 애쓴 것을 높이 사주신 것 같아 뿌듯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만큼 국가 건강관리 체계와 복지 제도 전반을 두루 살펴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행정부 감시 및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래 목적에 최대한 충실하여 비합리적인 정책 관행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대안이 나오는데 주력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치르며 살펴본 결과, 공정한 사회 마련과 복지예산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조가 훌쩍 넘는 복지재정 누수, 4천억 원대 '연구중심병원' 사업 관리 부실 등을 비롯해 어린이집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파악 부족 문제를 지적한 한편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최근 문제가 된 '식중독 케이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실한 '해썹(HACCP) 인증제도'를 시정하라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사업 운영상 미진한 점을 지적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가 실제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이외에도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살펴보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오직 민생에 집중해 의정활동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12.27.

국회의원 장 정 숙

장제원 국회의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소감 -**

국회의원 장제원(부산 사상)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상)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국정감사 평가단체인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저를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점,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20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 3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처음 등원한 그날의 그 다짐과 각오를 되새기라는 준엄한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또한 5천만 국민들을 대표하여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함께 완주하여 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처음 치른 금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불합리한 각종 법률제도들을 개선하며, 국민 체감이 가능한 실생활 중심 법안을 연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치소 과밀 수용 문제 개선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합리한 정부정책의 미진한 점 집중 지적하여 제도 개선의 성과를 이끌어 낸 점은 괄목할만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를 치르고자 밤낮 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를 감시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 또한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국리민복상의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깊은 뜻을 새겨,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전력을 다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경 국회의원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전희경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입니다.

270여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20년의 전통을 이어 활동해 온 ‘국감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발전과 올바른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더 힘차게 의정 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라는 국회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정감사는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국정감사를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직접 듣고 살펴보고, 국회의원의 질의를 꼼꼼히 평가하는 것은 우리 자유 민주주의에 있어 매우 소중한 정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1000여 명의 시민들의 눈과 귀가 있었기에 우리 국회가 더욱 긴장하고, 긍지를 갖고 국정감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갈 아이들을 훌륭한 인재이자 시민으로 키워는 데 있어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 시민 의식을 심어주고 교육 현장이 편향된 정치 이념과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 명의 교육위원이자 국회의원으로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여러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에서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주요 정부 정책들이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수상을 통해 지난 의정 활동의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 알찬 교육위 활동을 계획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9년 기해년에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전희경 올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입니다.

먼저 지난 20년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올바른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주신 27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국감NGO모니터단'에서 저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시고 국민복상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의 핵심 원인인 땅값,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 전면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보유세 강화 및 공시가격 현실화 등 개혁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성과를 거둔 것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을 철회하는 초강수를 통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부터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도록 관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상위 1% 기업과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집중해온 실태를 밝혀내고, 정부에 비업무용 토지 매각과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을 요구하여 '급등하는 집값을 잡을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멍니다. 얼마 전 마포구 아현동에서는 30대 철거민 박준경씨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거리를 배회하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11월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는 지금 고시원과 여관방 등 집이 아닌 쪽방촌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37만 비주택 가구가 있습니다. 살인적인 전월세 부담에 지옥고, 지하실과 옥탑방, 고시원을 전전하며 주거난민으로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집 없는 서민들이, 청년들이 누구나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국회의원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입니다.

우선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방 각지에서 벌어졌음에도 전국 곳곳의 국감 현장에서 꼼꼼히 진행을 모니터하고 평가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민감한 정치현안과 관련한 여야의 입장차이로 몇 차례 정상적인 진행에 위기가 닥치기도 했지만, 원만히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여야 기획재정위원님들의 덕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야 기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여야간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야의 견해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와 관련한 국회의 헌법상 의무보다 클 수 없는 극복해야 할 과제에 불과합니다. 향후에도 국정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성과를 내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합니다.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은 떨어져 가고 있고,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민경제 전반을 점검·감시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내년도가 경제체질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1천 여명에 달하는 모니터위원과 평가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드리며,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국회의원

##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운천입니다.

저에게 '2018년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의 커다란 영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0년 전, 농림부를 농식품부로 확대 개편해서 농민출신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제 1의 목표를 '농식품부를 1등 부처로 만들고 농업을 산업으로 바꾸어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로 정하고 신명을 다 바쳐 노력해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부담감도 남달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소외받고 외면당한 농어민을 대변하고, 농어촌 지킴이가 되어 농어민의 눈높이에서 국정감사에 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농업은 적색경보가 켜진 상황입니다.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의 64% 수준인 3,800만원에 불과하고 농촌에 정착한 청년이 9,000가구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재 농업의 현실입니다. FTA로 피해를 본 농어촌을 위해 1조원을 만든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광고했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식품부의 방관 속에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상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농촌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마을단위 태양농사모형을 제시하고, 농촌의 미래 청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농수산대학교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농어촌상생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 농어촌공사 등 농업 관련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을 지적하고 대책의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단 한 번의 지적으로 현재의 농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국민의 대표로서 촘촘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화 국회의원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광양·곡성·구례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정인화입니다.

무술년(戊戌年)을 갈무리하며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해온 20년 전통의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 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국리민복상 시상식과 국정감사 평가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와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살피신 1천여 명의 모니터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쟁국감을 지양해 왔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과 치안, 소방안전 분야의 정책 사각지대를 찾고 개선을 주문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의정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적을 위한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의 우려와 농촌 붕괴현상의 심각성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향사랑기부금제의 도입을 촉구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 실태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족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범위반 공표기준을 개정하고, 범위반 점검 공무원 수를 증원하며, 징벌수위를 강화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의 수상자 선정은 지금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격려와 응원으로 여기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농어민, 소상공인 등 약자가 보호받고 정직한 땀이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 선정에 애쓰신 법률소비자 연맹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법률소비자 연맹의 발전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태옥 국회의원

### [2018년도 국민복합 수감 소감]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정태옥입니다.

먼저 저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2018년도 국민복합 수감 의원으로 선정해주심에 법률소비자연맹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20대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불합리한 보훈정책과 민생 금융정책, 현정부의 실정에 관한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연이은 화학물질 검출로 대구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국가보훈처 국감에서는 정치적 논리로 민주화운동을 현충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합리성이 결여된 보훈 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는 바람직한 국가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연구원들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부의 성향이나 요구에 따라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 방향 자체를 바꿔버리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금융권 종합감사에서는 그간 불편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은행권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에 비해 크게 편리 것이 없다는 것을 프랑스 은행의 사례와 비교해 보였습니다. 의원실 인턴 비서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정책 질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펼쳐나감에 있어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잘못된 정부정책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래 국회의원

##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국감의원)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전국의 각 분야 27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NGO 모니터단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의원으로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라 할 수 있으며 여당으로서 민생·정책 국감을 이끌어내가기 위해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국감을 준비하면서 진단한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과제는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분야별 지지도 조사에서 '교육'영역은 25%에 그치며 조사 분야 7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교육에 대한 불신이 과연 특정 정부만의 문제였는지, 혹시 누적된 요인 탓은 아닌지,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 때문인지,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를 ▲교육의 신뢰도 제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과 점검 ▲교육계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과 폐습에 대한 문제점 진단 등 3개 분야를 기조로 하여 정책적 대안 제시에 주력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교원들의 준비정도와 학교안전·교육환경에 주목했습니다. 신학년준비기간, 교원정책, 학교안전공제제도, 학교체육관 공기질, 학교시설관리, 스쿨미투, 학생자살위험군 증가 등의 문제를 다루며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교무상교육 실현, 학교시민교육활성화, 지방대졸업생 지방인재 채용 확대, 대학입학금 장학금 미신청 해소,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등 과 관련한 문제들과 방안들을 제시하며 정부정책이 동력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

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계에 잘못된 과거와 폐습을 해소함으로써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자 국정교과서 불이익 인사들의 명예회복과 故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한 서울대병원의 거짓 진술 등에 관한 책임 추궁, 정수장학회 설립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지도 감독 문제 등을 지적하였으며 대한민국의 교육이 나아갈 미래를 위해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여 기간 동안 한국사회와 교육분야의 새로운 설계를 위한 사명감을 갖고 교육위 위원으로서 맡겨주신 권한과 책임을 다 하고자 노력한 국정감사였는데 이렇게 우수의원이라는 결실까지 맺게 되어 대단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국감 기간 내내 오랜 시간동안 노고 많으셨던 NGO모니터단 여러분과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국감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개선되고 제시했던 정책대안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교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국민들의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더욱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임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수상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더욱 잘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걸맞은 의정활동으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조승래 드림

조원진 국회의원

## 국리민복상 수상소감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런 증거없이 불법탄핵을 선동했고 대한민국을 거짓촛불의 망령에 빠지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좌파집단의 실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 20대 국회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선거개혁을 빌미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시작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대한민국 경제를 휘청하게 하고 있고, 과도한 공무원 증원, 국민세금으로 메꾸면 된다는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없는가?를 꼼꼼하고 섬세하게 조사하고 문제를 지적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2018년 국정감사에서 ▲불법탄핵의 진실과 가짜뉴스 지적 ▲불법탄핵에 반대하다 경찰의 안전관리소홀로 사망하신 애국열사님의 진실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의 잘못된 정책과 각종 의혹 제기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지적 ▲북한 사이버테러와 김정은 찬양의 심각성 등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거짓촛불에 저항하고 불법탄핵의 진실을 알리고자 탄핵반대를 외치다가 경찰의 안전소홀로 사망하신 네분의 애국열사님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4명의 국민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도 어느 방송과 언론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국민의 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감 NGO 모니터단’이 있기에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명성을 이어온 ‘국감우수의원상’에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처음으로 시상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언제나 그 래왔듯 이번 2018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도, 당리당락이 아닌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민생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대안제시에 주력했던 국정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주요경제 정책들로 인한 각종 폐해를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했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경제실험’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소득분배까지 악화시키는 현 정부의 실정을 다시 한 번 따갑게 지적하고, 이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사회혁신에 집중해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될 때임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 아닌, 각종 경제 통계를 통해 증명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었기에 그동안 야당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던 언론도 주목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생과 국익의 관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 대안 제시였다고 평가해 주셨기에 이렇게 ‘국리민복상’을 수여해주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신 것은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바라보고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다짐했던 초심을 잊지 말라는 당부와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국회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원 국회의원

## 국리민복상 수상 소감문

더불어 민주당 용인 정 국회의원 표창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표창원입니다. 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되어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국정감사장에 들어설 때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나온 분들이 배석하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송곳 같은 질의, 핵심을 짚어내는 질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질의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 첫 질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법원이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상당부분 진실로 드러났으나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할 당시만 해도 반신반의하는 여론이 다수였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한 폭력과 관련된 사건만이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자행한 국가폭력을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억울한 옥살이로 모든 것을 잃은 정원섭 목사 사건, 군사법원에는 지금까지 사실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염순덕 상사 사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질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결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사에 대한 질의에만 집중한 것은 아닙니다. 키코사건에 있어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였는지 여부, 법무부가 외국기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분쟁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른바 몰카 동영상 유포하면 막대한 이윤을 취하고 있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검찰에 질의하여 현 정부의 문제점 역시 성역 없이 파헤쳤습니다.

전국 각지의 모든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는 취지의 질의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할 만큼 경제적 곤궁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전관예우 해소를 위한 법원·검찰의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법관의 탄핵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자정 및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한

것은 대한민국에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행정부처의 자성을 요구하고, 스포츠계 미투 운동에 관해 2차 피해를 방지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여성가족부가 여성독립운동가를 더 많이 발굴하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남성의 희생과 용기만이 아니라 성별을 초월한 선열들의 피땀 위에 건국된 것임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주시는 이 상을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들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 소감문

안녕하세요. 해운대갑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입니다. 먼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시상하는 2018 국정감사 국민복상을 수상하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랜 전통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을 저에게 주신 것은 더 겸손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나아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심사하는데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를 비롯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분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화두 중 하나는 공정사회에 대한 갈망입니다. 땅콩회황과 정유라 특혜, 민노총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재벌기업의 갑질 등 각종 특권과 특혜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공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갈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방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분야에서 특권과 특혜를 방치한다면 우리의 환보환경 자체가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들의 병역특례와 봉사활동 부정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국민적 병무청과 문체부의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활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국방위 차원에서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를 구성해 실태를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남과 북이 완전파괴하기로 한 최전방 경비초소(GP)에 대한 보존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분단의 징표인 GP가 미래에는 한반도 평화와 교류를 상징하는 역사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파괴보다는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남과 북은 본 의원을 지적을 받아들여 시범철거 GP 중 각 한 곳씩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후 협의를 통해 남아 있는 GP는 최대한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었던 일 중의 하나는 마린은 헬기사고 유족의 아픔을 함께 보듬기 위해 노력한 점입니다.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아들딸을 군대에 맡길 수 있습니다. 또 남북한 평화무드가 조성될수록 우리 군이 더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갖출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실현도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번 국감기간 중 관련 상임위 활동은 아니지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윤창호법 통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03명의 의원들의 서명을 직접 받았고 윤창호군의 친구들과 기자회견, 토론회, 서명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고 결국 2개월여만에 윤창호법을 통과시키는 기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 큼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무관심은 정치의 수준을 더 낮추기만 할 뿐입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비롯해 더 많은 국민의 감시와 매서운 채찍질이 필요합니다. 지켜봐주시고 언제든 따끔한 질책 부탁드립니다.

한정애 국회의원

##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먼저 해마다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출된 자료를 정밀히 평가하시는 법률소비자연맹 및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애쓰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정책입안부터 집행에 이르는 국정운영의 전 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진행되는 감사로 국회의 여러 기능 중 행정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 및 국정운영이 타당하지 않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 이를 지적하고 정책이 온당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그 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꼼꼼하고 세심하게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특히 해마다 지적되지만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제시 국정감사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고 여전히 현장에 만연한 각종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은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국정감사 현장에서 호흡을 같이 하며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묵직한 상의 무게만큼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한걸음 한걸음을 신중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전하며 소상소감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며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연말연시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해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국회의원

### 소감문

반갑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갑)입니다.

먼저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영광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대표하여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게 받는 상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기쁩니다. 오늘의 이 상을 응원의 뜻으로 삼아, 언제나 한결같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감이었습니다. 집권여당은 행정부 감시,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가진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정국 운영의 공동 책임자로서 제도 개선을 포함한 책임을 다 해야 하는 역할을 함께 부여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경찰의 불법 촬영물 수사 허점 문제 ▲고양 저유소 화재 대처 부실 등 현안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간첩조작자 서훈 박탈 ▲소방 공무원 처우개선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시정 촉구 등 단순 비판을 넘어서는 실질적 대안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안 제시와 함께 올해 국감이 일회성 국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 가겠습니다.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더 성실하게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며, 더욱 발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주홍 국회의원

## 소감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입니다.

우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20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이끌고 계신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2018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위원장으로 임하게 된 첫 국정감사였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 전부터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첫째 싸우지 않는 상임위, 둘째 농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임위, 마지막은 정부를 상대로 할 말은 하는 상임위입니다.

농해수위는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조용한 상임위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어민의 삶이 걸려있는 민생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불필요한 파행을 막고, 항상 농어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정부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질타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단 한 차례의 파행과 고성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일부 갈등이 고조될 요소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해소의 길로 유도하며 유려하게 국정감사를 진행했다는 언론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농협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문’ 등 총 3건의 결의문을 채택한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농어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 선정에 감사드립니다. 매우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앞으로도 저를 믿어주신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농어민 여러분들의 힘이 되기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